

청소년 운동의 미래 워크숍

2008년 8월 17일(일) 오전 10시~오후 7시

세교연구소

청소년직접행동

part 1 내가 생각하는 청소년 운동 : 개인 설문

설문 문항

1. 청소년 활동,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나요?

: 각자 무슨 활동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써 주세요. 각각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지도요.

2. 무엇을 하고 싶나요?

: 앞으로 하고 싶은 청소년 운동은 어떤 것인가요? 왜 하고 싶죠?

3.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 두 가지로 구분해 써 주세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 청소년 활동가 또는 운동에 있어서의 문제점

4. 워크샵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 답변을 보내오신 순서대로 실습니다.

소언의 경우

1. 청소년 활동,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나요?

현재 청소년 직접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만나는 문화워크숍등을 진행하고 있지요. 청소년 직접행동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사실 다들 아시겠지요. 특별히 정치적 권리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만나는 문화워크숍은 청소년 활동이라고 구분 지어야 할지 문화연대 활동이라고 구분 지어야 할지 정확하게 분류하긴 힘들지만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자기표현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문화행동들을 모색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2. 무엇을 하고 싶나요?

청소년 문화운동을 하고 싶지요. 여기서의 문화운동은 크게 세 가지예요. 자신의 일상과 관련된 문화운동들. 예를 들면 정치적 권리, 삶에 대한 권리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문화행동들을 하는 거죠. 쉽게는 퍼포먼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죠. 단적으로는 등급제나 섯다운제를 들 수 있을 듯 하구요. 조금 다르게는 향락적 문화에 치우친 문화 환경들을 바꾸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직접적으로 기획하는 문화 활동이지요.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직접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특히 청소년들과 같이요.

3.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첫 번째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은 생각보다 높은 벽이에요. 배제당하는 기분, 배척당하는 기분, 다른 지점들

을 맞추어 나가기보다는 원래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 조금 생각이 부족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텐데 이것들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모자란 것 같아요 대다수 연대활동이 위주인 활동에서 연대활동가들에 대한 고민지점이 부재한 것은 나름대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연대활동가들은 단순히 행사진행 도우미로 전락하게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내가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요 재 璉介을 해서 소통을 하면 좋겠지만 자기검열을 하다가 정작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두번째 청소년 활동가 또는 운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따로 발제도 진행하였지만 책임과 활동의 분리라고 생각해요 활동을 하는 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니까 어떤 일들을 기획하고 진행할 때는 이 일에 대한 책임까지도 함께 가져가야 하는데 그 지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작 실무들은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구요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엔 활동가 재생산의 단절이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운동에서 활동가 재생산의 단절은 가장 큰 재앙이기도 하구요

4. 워크샵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적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지가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영역을 하고 싶은지 말예요

공현의 경우

1. 청소년 활동,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나요?

청소년인권운동을 하고 있어요 무슨 활동을 하고 있나 -; 학교 쳐들어가기 학생들 지원하기 전단지 만들기 책 내기 집회하기 퍼포먼스 단체운영 토론 글쓰기 신문내기 기타 등등.

의미?

인권이라는 포괄적이고 변화하는 개념(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있는)을 들고서 청소년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이죠

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담론 만들기 선전 조직화와 행동 등등.

청소년인권운동만의 무언가, 청소년인권운동만의 입장 생산의 역할...

2 무엇을 하고 싶나요?

'미성년자'라는 말을 없애기 위한 운동. '미성년자' '성인'이라는 구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어쩌면 청소년 인권운동만의 가장 고유한 영역)를 청소년인권운동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싶음.

3.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 :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피곤하다. 가난하다.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사람과 친해지

기)도 해야 한다, 흑흑.

청소년운동에서 문제점 : 돈이 없다. 사람이 없다. 담론이 없다.(담론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운동이나 정세에 휘둘리는 느낌-)

4. 워크샵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직접행동의 존재와 활동 방향

생선의 경우

1. 청소년 활동,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나요?

이수나로 건강하게 활동한다. 사람들도 좋다. 배우는 것도 많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서 참 좋다.

청소년 아동 권리센터-돈번다. 청소년들 만나다. 일도 배운다. 청직행.

2 무엇을 하고 싶나요?

더 좀 청소년에게로 다가가야하지 않겠나 싶다. 그리고 청소년 영역이랑 대학운동영역이랑 버무려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겠나.

3.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어찌됐든 느껴지는 배타적인 분위기 그리고 공격적인 분위기 이런거는 좀 고쳐져야 한다. / 청소년 활동가 또는 운동에 있어서의 문제점-한중도 안 되는 운동판이 찢기고 갈리고 정세판단 안되고 사안대응 안되고 그렇다고 교육이나 조직이 철저하게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홍보도 없고 청소년 운동 내에 정보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4. 워크샵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청직행 지속여부정도

난다의 경우

1. 청소년 활동,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나요?

회의하고, 집회 나가고, 행동 준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글 쓰고? 하는 일들...? ㅋㅋ

어떻게, 어떻게, 우연이든, 아니든, 이런 활동하는 곳으로 흘러들어왔어요. 흘러들어온거 같긴 하지만 또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엔 아주 막연했다고 하면 지금은 좀 뭐가... 아무튼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좋아서. 그래서 하는거 같아요.

2 무엇을 하고 싶나요?

활동하면서 몰랐던 것들, 알게 된 게 많아요 '보호주의'란 말도 그렇고. 예전에 눈으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 뭔가 뚜렷해지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음.. 앞으로 하고 싶은 청소년운동은.. 지금 까지 느꼈던 것들이,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될 수 있게? 이것저것 많이 공부해보고 싶기도 하고 요즘 관심 있는 건 페미니즘!

3.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느끼는 것들?

공유가 잘 안될 때? 내가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여기저기서 너 뭐냐고, 지금 뭐 하는거냐고 뭐라고 하는데 딱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을 때. 지금처럼 더울 때.ㅠ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때(-_-). / 너무 딱딱해, 운동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 지점들은, 발제문에서 좀 더 자세히?...ㅎㅎㅎ;; (열심히 해야겠습니당*_*)

4. 워크샵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은 것들?

- 음..... 글썄요 속시원히 풀어보는 자리였으면! 서로 너무 갑아먹지만 말구, 생산적으로 해 봐요ㅎㅎ

누리의 경우

1. 청소년 활동,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나요?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다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지점일 것 같은데, 나다에서는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인문학 수업을 통해 그들의 삶과 나의 삶에 대한 접점을 만들고 같이 변화와사회에 대한 비판과 행동을 고민하고 있고요, 네트워크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을 통한 현안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이것 역시 두가지 지점일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 즉, 대안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 언제나 기존의 교육운동진영에서의 정책들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제도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싶어요.

다른 하나는 조직, 혹은 재생산. 매년 운동의 위기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에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청소년 판도 매년 그랬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것들의 위기를 좀 돌파하고 싶어요.

3.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청소년운동의 당사자가 아니기에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고민이 들어요.

한편으론, 우리에게 전망이라는 것은 있을까. 현안적 대응에 부딪히면서 장기적인 방향을 고민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 한편으론 전체적인 운동진영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일까 고민이 듭니다.

4. 워크샵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획단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엠건의 경우

1. 청소년 활동,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나요?

아수나로, 청직행에서 활동 중. 그간 했던 5.17 등교거부와 집회, 기호 0번 활동은 포인트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에 있었죠 교육 뺀 예전부터 머릿속에 달고 살아왔어도, 정치적 권리 같은 건 전혀 생각도 못 해 봤던지라, 두 세 달 새 시야가 조금은 넓어진 듯 해 음 좋아요 좋아. 이려고 싶어서, 시작했지요 넓어지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나의 성장을 위해 청소년 운동을 이용(?)하고자, 켜. 왜 하나고 물으신다면, 이런 곳에 이미 태어나 버린지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현실감각이 생기더라구요. 세상이 계속 이대로라면 내가 못 살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같은 말은 선뜻 못 하겠어요 인간이 원체 소박하고 간담이가 작은지라. 다만,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 마음에 책임지기 위해서 한 다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간 한 활동의 의미를 물으신다면, 이미 이렇게 생겨먹었으니 어쩔 수 없지 고개 숙이는 대신 고개 뺏뺏이 들고 저항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저항은 '이미 그런 것' 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직접 증명하는 거고, 이런 저항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2 무엇을 하고 싶나요?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하는 세상, 에서 살고 싶다. 선생 대 학생으로 관계하거나, 부모 대 자식으로 관계하거나, 청소년 대 성인으로 관계하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너랑 나 사람 대 사람 그런 관계. 그게 안 되는 게 온갖 이름표가(학생이라는 신분, 청소년이라는 위치, 내가 다니는 대학의 순위 등등) 사람보다 앞서고 심지어는 사람을 대신 하기 때문이니까, 이런 이름표의 중요성을 없애는 운동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런 이름표가 사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여건을 바꾸고 바꿀 수 있는 힘을 모으는 일이라구요. 이런 일을 내가 즐거울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싶고, 당장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 알 수 있도록 공부하고 싶어요.

3.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초반에 겪었던 어려움은 아무래도 아는 게 없다보니 자꾸 위축되는 점. 주눅 들고 혼란스럽고, 게다가 사람들은 죄 불편하니까. 처음엔 심적으로 그런 게 힘들었고 조금 적응 되고 나서는 너무 바쁘다는 게 스트레스였어요. 거의 매일 밖에 나가다보니 지치기도 하고 개인 시간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우울하기도 했고 /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표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만큼 중요한 건데, 매번 생략되거나 너무 간단하게만 이야기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애길 안 하는 건지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활동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어 기호 0번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왜 하는지 이걸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건지 잘 몰라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위해' 이 한 마디 듣고 어렴풋이 아아 할 뿐. 하기로 한 일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 하는 사람들 혹은 개인적으로 제각기 다르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 없어서 뒤로 빠지고 덕택에 소수에게 실 무가 물리고 나머지는 도우미 정도에 머물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충분히 안 하고 하는 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알더라도 몇 몇만 아는) 엉거주춤하게 일을 진행한다, 뭐 이런 문제점.

4. 워크샵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일매일 활동하면 인간이 점점 딱딱해져요.- 왜 일까요 단순히 바빠서, 만일까요

진주명의 경우

1. 청소년 활동,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나요?

별로 하는 활동은 없고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많은 피해를 받아 서요

2. 무엇을 하고 싶나요?

비폭력시위와...많은 대화or토론을 하고 싶어요.....

3.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고 흔하게 '어른' 들이 많은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것이요

4. 워크샵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음 청소년의 자유 ??...라고 생각합니당 ... @_@..

정크의 경우

1. 청소년 활동, 무엇을 하고 있고 왜 하나요?

"청소년 운동"을 '청소년들이 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해당사항이 없고, '청소년의 삶에 관계된 운동'이라면 나다가 하는 교육운동이 다 해당된다. 이 질문에는 '청소년 운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한해 말하는 것이 맞겠다. 나다가 지지하는 청소년 운동은 '억압으로부터 청소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청소년 스스로임을 알고 기존 제도 및 권력과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청소년 직접 행동"에 참가하고 있다.

2. 무엇을 하고 싶나요?

교육공동체 나다가 교육 운동을 하는 이유는 교육 내용을 '좀 더 건강한' 것으로 바꿈으로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개선'할 수 있다고 파악해서가 아니다. 교육은 내용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재 생산해내는 핵심 장치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자본주의 시스템 밑바닥의 노동자로 성형되고 지배 이데올로

기를 내면화하게 된다. 자신이 피지배계급이면서도 지배계급을 위한 이해를 갖고 이를 교육을 통해 다시 후대에 강제한다.(두발제한이라는 신체에 대한 통제는 지배에 길들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청소년일 때 머리 깎이는 게 싫었던 사람이 어른이 되면 애들을 좀 잡아야 된다고 한다.) 무한 반복. 이 재생산 장치가 공고하다면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삶을 억압하는 지금 이 사회가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바뀌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을 뒤엎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방법론에서 나다는 인문학 수업을 첫 번째 키워드로 파악한다.

청소년 운동 또한 교육에서 출발한다. 사회가 규정한 교육의 대상으로서 교육 제도의 부조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탈학교를 선택했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이 만족스러운데 학교를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청소년 운동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억압의 당사자인 청소년 스스로가 저항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청소년이 아니게 되면 이젠 청소년 운동인가 아닌가? 여성은 죽을 때까지(자신의 성을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는 한) 여성이지만 청소년은 누구나 언젠가는 청소년이 아니게 된다. 그러면 청소년 운동은 한시적인 건가?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다. 청소년 활동에 관심있던 많은 청소년이 이 시기를 벗어나면 관심을 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청소년 운동이 사안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두발자유 싸움은 두발자유를 얻으면 끝나는가? 하지만 지배 계급은 지배에 유용하다면 두발자유 정도는 허용해 줄 수도 있다. 20여년 전 독재 정권 시기에 교복자율화, 두발자율화가 이미 시행되었던 사례가 있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삶이 달라졌나?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 다시 교복 착용이 강제되고 말았다. 이걸 단지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시대가 거슬러 올라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두발자유와 같은 구체적인 억압 상황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목표를 두어서는 어찌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젠 모든 소수자운동에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공직자 여성할당제는 사회에서 여성의 배제를 줄이지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극소수의 중상류층 여성에 대한 혜택일 뿐이다.

결국 사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청소년 운동(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아니라 유지를 위해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을 통해 청소년 운동은 교육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현재의 교육이 사회 제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의 재생산 장치라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 장치를 거부할 때 구조는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할 때는 청소년만의 인권이지만 청소년 해방을 말하는 것은 인간 해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된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운동은 인권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현재는 침해 사례에 대한 상황 대응 위주 활동이다. 구조를 바라보려는 노력, 즉 인문학적 사고가 부족한 것 같다.

인문학적 사고는 세계를 주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주체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데올로기가 가리고 있던 세계의 모습을 접하게 된다.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며, 한 개의 사건 한 사람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비로소 다가갈 수 있다. 이 때 구조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도 반추하게 된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이 갈등을 받아들일지나 세계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들이고 기존 이데올로기 뒤로 숨느냐는 선택의 기로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인문학 수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인문학을 통하지 않으면 주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문학적 사고란 지적인 허영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이런 삶의 태도는 절대로 지배계급의 가치일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을 좁게 이해할 때 이견 얼마든지 지배계급의 가치와 만난다.(학내 종교 자유 운동을 벌인 강의석씨가 보이는 최근의 모습들, 학생인권법을 청원하는 희망이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때) 계급지향 없는 청소년 운동은 사회운동이 아니라 이익집단 운동이 될 위험마저 있다.(우리 학교는 두발자유야 인권 보장돼!) 지금 운동의 주체로 나선 청소년 활동가들과 우선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실천 활동을 해나가고 싶다. 삶의 태도에 대한 고민에 따라 인간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관계 맺기에 있어서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는 것도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지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청소년 운동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 이미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의 공부 프로그램을 같이 마련해 보고 싶다.

3. 활동하면서 한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 비청소년에 의해 보호라는 이름으로 간섭받거나 비청소년이 주도해 소외되거나 할까봐 경계할 때는 주체적이면서, 스스로 나서서 일을 챙기지 않는 비주체적인 모습을 볼 때. 맘대로 쓸 공간이 없고, 돈도 없고, 학교나 알바를 뛰어야 하는 열악한 조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예) 정크씨의 경우 : 청소년 운동, 청소년 스스로가 하는 운동?

사무실 문을 여니 지난밤 집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잠을 잔 듯 모기향을 피운 공기는 매캐하다. 십여 벌의 찢기고 물기가 마르지 않은 비옷이 뭉뚱그려져 캐비닛 앞에 처박혀 있고 굴러다니는 양말이 두세 켤레, 피켓은 대충 벽에 세워뒀다. 구겨진 전단지 뭉치를 발로 밀치며 사무실로 들어서자 먹다 남은 김밥과 컵라면 사발에 왕파리가 앉아있다. 자리에 앉으니 모니터 뒤편에 삼분의 이쯤 비운 소주병이 보인다. 세 평 남짓한 공간은 맨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책상 위 마우스라도 움직일 공간을 마련하려고 급한대로 먹다 남은 음료컵들을 수습해 일어서다. 대충 집어들었는데 열두어 개. 양손이 부족하다. 세면대가 있는 화장실 문을 등 짝으로 미는데 몸이 절로 흠칫한다. 심상치 않은 기운. 돌아서 화장실 안을 보니 아나나 다름까 변기가 막혀 물이 넘쳤다. 여러 시간 지난 듯 바닥 전체에 오물이 말라붙어있다. 컵은 다시 사무실에 들여놓고 화장실을 먼저 치우기로 한다. 휴~.

사무실로 돌아오니 다시 처음 문을 열 때와 같은 광경. 주섬주섬 널린 종이뭉치들을 집어든다. 1시간 반이면 되려나... 허리를 펴니 벌써 회의시간이다. 하지만 아무도 도착하지 않는다. 쓰레기 봉지를 들고 터덜터덜 현관을 나선다. 내일은 고리라도 창틀에 몇 개 걸어서 가방 수납이라도 할 수 있게 해 놔야지... 하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들어선 사무실, 어제와 꼭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다. 이건 데자뷔인가? 아니면 무한반복 지옥? 아악- 나 파업할래!

- 일에 찌는 모습. 놀 줄도 모르고 우리끼리만 남는다. 어케 운동해?
- 일에 찼어서만이라고 하기에는 배려없음. 처음 온 사람들을 뭘 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는다. 모른다고 구

박하고

- 목소리는 큰데.. 무조건 강경하면 멋져보이는 걸까? 내용 전달이 안 되는데 운동이랄 수 있나?

4. 워크샵에서 다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새 활동가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가들의 관계 맺기 문제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

part 2 청소년 활동가가 느끼는 어려움과 청소년 운동에서의 한계

- | | |
|--------|--|
| 과로 | : 일만 하는 청소년 운동 |
| 재생산 | : 조직화 혹은 재생산에 대한 거친 고민들 |
| 주체성 | : -활동가들의 적극성, 주체성?
- 주체가 되는 데 필요한 것들
- 나는 왜 "잘 챙겨야하는" 비 청소년이 되어야만 했을까? |
| 남성중심문화 | : 인권을 생각하는 청소년 활동가가 남성적? |
| 소통 | : "뭔가, 뭔가, 단절감?? 왜들 그런거니~!" |

일만 하는 청소년 운동

- 엠건

이 글은 '왜 맨날 쯤는 회의만 하는건데데데데' 라는 나의 개인적인 불만에서 시작된다. 난 희망 다함께가 싫은 게 아니라 희망 다함께 이름이 나오는 회의가 싫다. 훗훗 이건 정말이지 쯤는 회의의 최고봉이자 가장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난 회의가 싫은 것도 아니다. 내가 정말 싫은 건 회의만(!) 하는 거다. 회의하러 만나고, 회의 끝나면 헤어지는 관계가 좀 좀 슬픈거고 일에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활동이 좀 많이 답답한 거다.

배움과 놀이와 일의 통합, 청소년 운동은 일에서 시작해서 배움까지는 이어진다. 그러다 놀이 쪽으로 가면 뚝 끊어진다. 말 그대로, 뚝. 운동이란 말을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것은 운동에 대해 퍼져있는 기존의 '거친, 딱딱한' 등의 인식을 나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운동이 거칠 것까지야 없다. 화염병 던질 일도 없고, 매일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좀 딱딱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 기호 0번 케발랄 후보를 외쳤지만 우리가 정말 발랄했을까. 후후=_=.

매일매일 활동하면 인간이 딱딱해진다. 단순히 바쁘기 때문 만일까. 글썽, 딱딱한 일정 외에도 일만 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 하는 동안 딱딱해졌으면 그 외의 시간에서라도 딱딱함을 발랄함으로 뒤 바꿔 줄 에너지 충전 활동을 좀 하면 좋겠는데, 이걸 잘 안 한다. 우리가 놀자고 모였던 적이 있던가. 푸푸. 일 밖에 할 줄 모르는 건지도, 음. 사실 잘 놀기도 어렵긴 하다. 어떻게 놀아야 될 지 모르겠거덩. 과자 먹고 술 푸고 노래방 가고 그 정도 밖에 안 떠오르니까. 청소년 활동가들이 문화 활동과는 동 떨어진 채 살아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안 하는 면이 크다. 안 가본 동네라 있는지를 몰라서 그냥 자기 동네에 처박혀 사는 그런 게 아닐까 싶다. 활동 하면서 접하는 '문화적인 것'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바위처럼' 같은 민중가요를 즐겨 부르는 정도의 운동권적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개인적으로 예술 관련된 게 참 좋다. 소설이던 시던 영화던 음악이던, 근데 활동 하면서 이런 걸 즐기

회의...

려면 내 개인 시간에 따로 해야 한다. 활동은 문화예술 이런 애들이랑 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까이 붙어있는 건 피켓 정도일까..)

정리해보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일단 하지 말고 좀 놀자 우리. 일거리의 팍팍한 오오라에서 중간 중간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에너지 충전해서 다시 으쌰 으쌰 활동할 기운이 생기지. 또 하나는 활동가들의 생활에 문화가 들어오고 예술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 음음. 각자 알아서 잘 들여놓고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흐흐 마지막으로 기존의 운동(주 특성, 팍팍함)을 답습하지 않았으면 한다. 자꾸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하고, 운동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으면 한다. 틀에 갇히지 않는다, 사실 이걸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활동 하다보면 말 할 때나 글 쓸 때나 같은 소리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될 때가 많다. 고정된다고 해야 하나, 나도 잘 모르는 소리를 문화가 어찌고 운동이 어찌고 비롯해서 여러 개 지껄이고 있는데 각설하고 조심하자는 말 하고 싶었다. 지루해지는 것 경직되는 것 마구마구 경계합시다. 그러는데 문화예술 이런 애들이 도움을 줄 거라 생각, 이거 덧붙이면서 끝.

끝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이 남았다. 조금만 더 하자. 두 세달 간 나름 열심히 활동하면서 나타난 부작용 몇 가지. 감성은 멀어지고 이성과 가까워진다. 인간이 점점 팍팍해진다. 과도한 외출의 결과로 에너지가 심하게 고갈된다.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 가다보면 흡사 야근 끝나고 녹초가 되서 컴백홈한 직장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든다.;; 그간 내가 해온 것은 확실히 놀이가 아니다. 일로 받아들였고, 일로 느꼈고, 그래서 일을 했다. '활동 너무 재밌어, 까악 너무 즐거워' 이런 마음이 들려면 일이 일로 안 느껴져야 한다. 웬만하면 놀이처럼, 놀듯이. 그래야 안 지친다. 우리 놀면서 일해요~ 를 넘어서서 일이 놀이 같았으면 좋겠다. 굳이 일할 땐 일, 놀 땐 놀이 구분하지 않아도 일이 일 같지 않고 재밌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안 우리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고민해보아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참 좋다. 좋은 사람들이랑 직장동료처럼 일로 맺어지는, 필요에 의해 만나는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이 놀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직장 동료 같이는 안 되지 않을까. 으허헛. 뽀소리 지껄이면서 정말로 끝.

세계

음음

음음~ ...



모순
어울리지? ㅋㅋ

멋

인.

조직화 혹은 재생산에 대한 거친 고민들

- 누리

-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교육의 강화는 청소년들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박탈하고 있음. 집-학교-학원이라는 3중의 굴레 속에서 청소년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 공간을 선택하게 됨. 이는 90년대 이후, PC통신을 통해 성장해온 과정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음.

이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들의 운동에 대한 접근성 역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쉽게, 자신들이 처해진 환경에 대해 인터넷 공간을 통해 고발 할 수 있고, 한편으론, 기존의 청소년운동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운동의 영역에서 살펴볼 때 인터넷 접근 그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즉 현실에서의 조직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사업 등을 진행했지만 그다지 성과는 미미했음.(내부, 세미나정도로 머무름.) 장기적으로 그들이 나오고 활동을 고민해 볼 수 있는 틀이 되지 못했음.

- 한편 이와 다르게, 올해 촛불집회의 경우, 청소년운동진영과 별개로 자생적으로 나타난 결과 임. 수많은 청소년들이 나왔고, 이는 광우병쇠고기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이명박 정부의 무지 막대한 교육정책의 반발로 터져 나온 것임.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도 운동단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임. 촛불집회가 놓치고 있는 지점에 대해 의제를 확장하기위해 노력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과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임.

- 이런 상황에서 고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함.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적극적인 행동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작업일 것임.

- 지금은 적극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쉽게 모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함. 다만 그 관계가 어떤 장기적이고 삶을 고민하는 모임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로 끝난다는 것이 유감스러움.

- 보다 고민은 적극적인 행동을 고민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의 고민. 의제의 다양화 일 수도 있을 것임. (ex 희망이 대표적인 모델 일 것임. 문화 및 활력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다양한 접근.) 물론 여기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분명 인권적 의제로 접근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길 중에 하나의 길일 수 있음.(물론, 인권적의제는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위에도 말했듯이 점차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만날 것인가의 고민. 하나의 고민이 지역적인 접근. 자기 동네에서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 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함. 인터넷을 통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딪혀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함. 이미 뭐 전단지나 나눠주거나 캠페인을 하는 방법을 뛰어 넘어서 그들의 삶의 지근거리에 찾아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음.

"활동가들의 주체성, 적극성?"

- 난다

어떤 행사를 준비할 때, 몇몇 사람들만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점. 같이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확실히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그냥 계속 곁에서 맴돌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난 처음 모임에 들어왔을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처음 모임에 온 활동가에게 어떤 설명을 해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 물론 처음 온 분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낯선 모임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가 그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어찌 보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겹쳐서, "그래,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나는 이것만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같아.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또 항상 많이 일하는 사람만 많이 하게 되고, 아닌 사람은 또 아니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닐까?

또 한편으론, 나 스스로도 그동안 "내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도 같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주체적이지 못했던 거 같고.. 반성이 돼염.ㅠㅠ

엠건에게 바톤터치!

'주체'가 되는 데 필요한 것들

- 엠건

단순히 주체가 되겠다는 생각만으로 주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보다 할 수 없어서 자꾸 뒤로 물러서고 무얼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일이 주어지길 기다리게 되는 면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난 '주체'가 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려고 해.

뭐가 뭔지 몰라서 자신감이 없는, 그래서 수동적이 되는 청소년 활동가들. 나도 그랬고 난다도 그랬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기가 쉬울 거라 생각해. 처음부터 다 알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이주의에 대한 비판만 해도 그동안 선생들한테 꼬박꼬박 '님' 자 붙이고, 어른들한테 존대 쓰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거든. 처음부터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 게 아니라면, 모른다는 이유로 위축되지 않도록 난다가 위에 말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어. 사실 처음엔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가 안 가. 모르는 걸 물어보라고 해도, 전부 다 모르거든; 앞으로 자기가 뭘 할 지에 대한 상도 없어. 결국, 같이 많이 많이 얘기하는 게 답이 아닐까 싶어. 알아서 생각하라고 하지 말고, 같이 얘기했으면 해.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일 얘기 말고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그런 막혀있는 분위기 회의 말고는 만나는 자리가 없어서 얘기 할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야. 고로, 활동에 대한 이모저모- 모르겠는 점이나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하고, 평소에 꾸준히 그런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주체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요한 기초블록 쌓기 작업이랄까.

또 하나, 주체적이기 힘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능력부족이야. 일을 하고 싶어도 능력이 떨어져서 못 해, 글을 잘 못 쓴다거나 뭐 그런 등등의 이유. '능력 없으면 어때, 뭐' 만 외칠 게 아닌 게 난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두렵거든 이게. 난 여기에 도움 줄 수 있는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 괜한 자책감이 들어서 '여기에 계속 있기가 괴로워.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일을 너무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글 같은 경우, 글 쓰기 능력 이전에 글에 쓸 자신이 '생각'이 없다는 게 초보들이 느끼는 '능력부족'일거라 생각해. 뭘 써야 될지 몰라, 모두 같이 정치적 권리에 관련한 일을 하면서도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권리가 왜 필요한데'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활동가는 소수뿐이고 그 소수가 주로 일을 해. 이런 식으로 하기로 한 일에 대해 소수만 이해하고 활동을 진행하는 패턴이 자꾸 반복 돼.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런 과두체형 활동(?)을 그만할 수 있도록 했음 싶어.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들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하는 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싶어.

주체성은 엄연히 개인의 몫이야. 마음가짐, "이건 내 일이다. 이건 무지무지 중요한 일이다!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주체 감수성은 누가 주입한다고 주입되는 게 아닌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생기는 마음이잖아. 하지만 마음 외의 경험부족 청소년 운동에 대한 생각 부족 이런 '모름'을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몫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하시오' 라고 미뤄두지 않았으면 해. 주체성 자체는 마음이지만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음만이 아니지. 청소년 운동, 청소년 인권운동에서 다루는 것들에 대한 감수성,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 주체의식.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갖출 수는 없어. 이것들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모두의 몫인 것 같아. 청소년 운동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그것을 기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스스로 알고 직접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주체'의 조건이야. 사회의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 지, 그냥 알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그래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에 대한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어. 사실 어떻게 해야 될 지 막막해. 그런데다 활동 하다보면 아예 이런 걸 공부할 시간도 없어. 이런 공부 활동을 일부로 할 수 있음 좋을 텐데 오죽 바빠야 말이지. 집회준비 할 때나 기호 0번 활동을 할 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을 나에게 충분히 하지 못 했어. '왜'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 더 급했거든. 일이 바빠서 정작 가장 중요한 고민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 왜 하는지, 이런 활동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나는 무엇을 하길 바라는지, 청소년 운동의 주체가 될 가장 중요한 조건! 운동에 대한 의욕

길고 긴 발제의 끝은 결국, 같이 얘기하지는 거야. 처음 온 사람들이랑, 활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랑, 꼭 모르고 어렵지 않아도 평소에 활동가들끼리 꾸준히 얘기하자고, 결국 만병의 근원은 소통 부족 같으니.

나는 왜 “잘 챙겨야하는” 비 청소년이 되어야만 했을까?

정소연

+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청소년?

아마, 청소년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고, 듣고 하게 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희망과 흥사단을 비판하던 가장 큰 관점의 차이도 아마 이 부분 아니겠는가?

스스로 기획하고 주체성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운동이 되어야 하는 데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아마도 지향하겠지.

그런데 왜 나는 어느 순간부터 “잘 챙겨야하는” 비 청소년이 되어버린 걸까?

기자회견문은 챙겼는지, 현수막은 어찌 되었는지. 누구누구 오는지,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심지어 끝나고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까지도(더 나아가 계산까지도) 생각하는 나를 보면 나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치다꺼리를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다. 분명 같은 눈높이에서 어깨를 마주하고 달리고 있다 생각했는데 왜 내가 뻗는 언어들에 잔소리로 후딱 둔갑해버린 걸까?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이 되어 버린 것일까?

나는 그들의 부모도, 선생도, 심지어 폰대도 되고 싶지 않은데....

+ “척”하는 우리, 누구랑 운동하고 있는거니?

독립적인 척 하는 청소년 운동, 마치 그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 한 냥 치켜 올리는 비 청소년 나는 배후세력이 되고 싶은 걸까?

사실은 몇 명의 비 청소년들에게 맡겨지는 실무, 발언의 기회는 모두 청소년에게, 결과에 대해 평가도 비판도 없는 행사, 시간이 되는 대로 모이는 회의, 이 모든 일에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가는 것일까?

간혹 생각해. 나는 지금 누구랑 운동하고 있는 거니?

후원과 지지가 필요한 청소년 운동에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는 뻔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인데 단지 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운동에서 왜 배제되어야 하는지 하는 “서러움”이 들어. 사진 찍고, 비품을 만들고, 전화를 하고 정작 행사 때는 뒤로 빠져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왜 반복될까? 왜? 실무는 내가 계속 했던 했던 것이라서? 청소년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단순한 취미활동이라서?

정말로 어깨를 마주하고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런 척 하고 있었던 것일까?

+ 지금 필요한건? 바로 고민하기

정책을 만드는 것 후원을 받아 오는 것 보도 자료를 쓰고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행사를 기획하는 것 등등등!!!! 차려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는 건 설마, 아니지? 모든 것을 똑같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서 것쯤은 모두 알잖아!

하지만 언제까지 늘 하던 사람이 진행해야 하는 걸까?

2시간 걸리는 보도자료 누군가는 4시간이 누군가는 8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제나 당연하다는 듯이 2시간 걸리는 사람들에게 또는 어떤 특정인들에게 돌아가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자신의 역할을 굳이 지정해주고 싶진 않지만 나도 모르게 시키게 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끈대라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아, 자꾸 나이 많아지는 것 같아 싫다.)

어때?

내게는 청소년 운동은 내가 지향하는 소수자 운동의 가장 큰 영역이고, 궁극적으로 가장 하고 싶었던 운동이다. 하지만 왜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인” 청소년 운동가들을 만나면 어찌 자꾸만 “배후세력”이 되어가는 것일까?

위태위태함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감정이라면, 그것의 가장 큰 가장 큰 문제는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은 우리의 구조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어떤 일들을 할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까에 대한 고민. 이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권을 생각하는 청소년 활동가가 남성적?

- 정크

여성적이라는 건 남성적이라는 건 뭘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면 여성적이고 남성이면 반대고? 캠프 때 인권지킴이가 여성, 남성으로 양분하는 건 편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양성의 잣대에 억지로 맞추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럼 중성적?

정의를 따지고 들자면 꽤 많은 공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인 능력 차이가 있다는 시각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연구자들이 여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강조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페미니즘 안에서 생물학적인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물론 이 때 '생물학적인'이라는 말은 범주가 좀 다를 수도 있어. 여기서 좀 폭 넓게 남성중심의 사회 안에서 습득하게 된 남성중심의 사고방식과 태도라고 봤으면 해. 너무 두루뭉술한 태두리라 허점이 많겠지만 청소년 운동 안에서 실은 꽤나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고 토론이 필요해.

우선 활동가들 중 여성의 비중이 낮아서 처음엔 좀 의아했지. 지금 청직행엔 두 명의 여성 청소년 활동가가 있지만 최근에 결합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좀 지나보니까 짐작하겠던 걸. 신입은 버티기 힘들겠구나. 처음 와도 인사 한 마디가 고작, 바로 회의에 들어가는데 회의를 위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아 어리둥절. 회의가 끝나면 각자 일로 흩어지고, 이걸 다음 회의에서도 반복. 감정적인 교류가 전혀 없이 업무 위주라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운동을 위한 실무?)를 위한 배려라는 것도 없더군. 남성은 목적 지향적이고 여성은 관계 지향적이라고 하잖아. 생물학적으로 원래 그런 것인지,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문화인지는 토론거리로 남겨두기로 해. 우선 인정하고 본다면 분명히 남성적인 태도라 할 수 있겠지.

활동가들끼리의 소통도 가끔 있는 술자리 위주더군. 술자리를 좋아하건 말건 간에 귀가 시간 제약이 큰 여성들은 우선 배제되고 말아. 그 외 소통의 시간은 업무 이외엔 너무 부수적인 거라. 당연히 거의 없지. 사적인 소통이 과연 부수적인 걸까? 여긴 비청소년들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왜 비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술문화가 좋지?

그런데 그런 소통 부재의 문제점들은 수시로 튀어나와.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 그건 단 순하게 말할 수 없는 개인사의 절곡이 상대에 대한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보여. 어쨌든 드러나는 방식은 그냥 울컥 화를 쏟아내고 말아. 남성적으로 그런 때 그 어려움을 알려고 하거나 그 어려움 때문에 유연하지 못하다는 이해심을 발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그 배려없음도 남성적이고 결국은 부딪침의 상황을 받아안으려는 감정노동은 심지어 신입인 여성들의 몫이다. 남성 활동가들이 전혀 그런 감정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냐. 그런 문제 상황을 일으키는 태도가 남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여성이 남성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냐. 마찬가지로 남성적이라고 문제 삼을 수 있어.

비판 수용에 인색한 것도 남성적이라고 생각해. 그건 인정받는다는데 집중하는 거고, 곧 우위를 점하려는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태도를 남성적이라고 하겠어.

문제는 이런 상황을 만든 남성(생물) 니가 잘못이야가 아니야. 이런 '남성적(이라고 이름한 태도)'=문제적인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활동가들이 버틸 수 있겠냐는 거지.

맑스주의 또는 좌파 이론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장치로 학교와 가족을 꼽아. 가족은 또 여성을 착취해서 유지되는 장치지. 여성 해방 없이 청소년 해방 없다? ㅋㅋ. 하지만 남성적인 태도를 긍정해서는 여성 해방은 오지 않을 것 같아.

"뭔가, 뭔가, 단절감?? 왜들 그런거냐~!"

- 난다

음... 내가 침 모임 참가하면서 느꼈던 게, 아 이 사람들은 왜 회의만 하는거야. 하는 생각...;; 회의 하러 모였다가, 회의 끝나면 그냥 가고 뭔가, 친해질 기회가 없는거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다죠(그래서 난 적응하는데도 시간 좀 걸렸다는)

그리고 아무래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자주 만나다보면 서로 감정적인 부분으로 부딪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는 분위기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거 아닐까? 그래서 쌓이고 쌓이지만, 드러낼 수 없고, 그런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거 같애. 솔직하게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 같아. 그런 애길 하는 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이상하게 서먹서먹. 그런 관계가 계속되다보니 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예전부터 말하고 싶었던건데, 매일 회의만 하게 되니, 얘기할 시간이 안나는거야 난 같이 '우리 왜 뭔가 어색할까. 왜 일만 하게 될까.' 하는 걸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물론 청소년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 다 중요한 활동이었잖아. 근데 정작 활동하면서 우리가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심지어 관심을 안 가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누가 모임에 왔었다가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다들 그냥 "어, 왜 갔지?"라고만 하고, 아무도 연락해보는 사람은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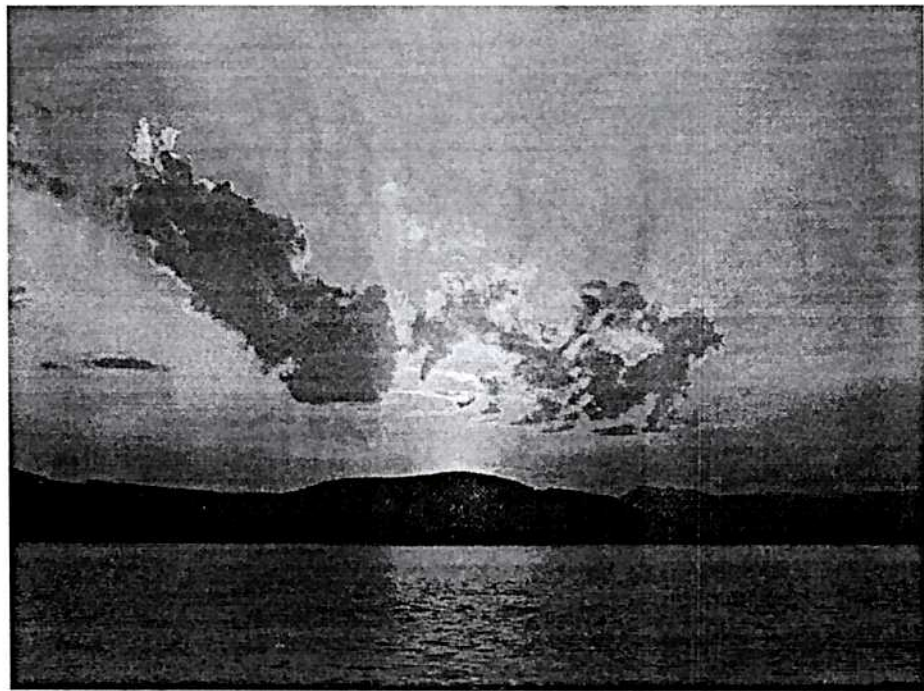
서로 잘 모르고, 잘 알려는 노력도 부족한거 같고, 그러니 소통도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 일하면서도 누군가는 소외되고, 그러면 또 언제나 많이 일하는 사람만 일하게 되고, 많이 안 하는 사람은 또다시 "난 잘 몰라서..."가 반복되니.

사실 많은 어려운 점들, 문제점들이 다 조금씩 겹칠 수밖에 없는거 같아. 활동가들의 적극성이 부족한 건 스스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겠고, 그만큼 서로간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소통이 부족해지는 건, 일만 하게 되는, 회의중심의 모임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고 모든 문제가 서로 얽혀있는 거 같애.

이번에 이렇게 서로가 고민하고 있던 걸 풀어놓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같이 짚어보고,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얘기하면서 서로를 감아먹지는 말자. 상처주지 말자고 했는데, 또 끊어버리지는 말자구.

청직행 워크숍 2차

(두구둥!)



1. '청소년 운동' 은 뭘까? 뭘 해야 할까?
2. 청직행 지속할까, 업앨까
/ 지속한다면 무엇을 해야하나
3. 1차 워크숍 때 나왔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까

*

청소년 운동, 뭘까? 뭘 해야 할까?

- 정크의 발제문
- 공현의 발제문

*

1차 워크숍 때 나왔던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까? 제안!

- 도도, 심표, 공현, 소연

정크가 생각하는 청소년 운동

교육공동체 나다가 교육 운동을 하는 이유는 교육 내용을 '좀 더 건강한' 것으로 바꿈으로써 청소년의 삶의 '질'을 지금보다 '개선'할 수 있다고 파악해서가 아니다. 교육은 내용이 아니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내는 핵심 장치다. 교육을 통해 청소년은 자본주의 시스템 밑바닥의 노동자로 성형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게 된다. 자신이 피지배계급 이면서도 지배계급을 위한 이해를 갖고 이를 교육을 통해 다시 후대에 강제한다.(두발제한이라는 신체에 대한 통제는 지배에 길들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자신이 청소년일 때 머리 깎이는 게 싫었던 사람이 어른이 되면 애들을 좀 잡아야 된다고 한다.) 무한 반복. 이 재생산 장치가 공고하다면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의 삶을 억압하는 지금 이 사회가 인간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바뀌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교육을 뒤엎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방법론에서 나다는 인문학 수업을 첫 번째 키워드로 파악한다.

청소년 운동 또한 교육에서 출발한다. 사회가 규정한 교육의 대상으로서 교육 제도의 부조리와 억압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탈학교를 선택했다 해도 아무 문제없이 만족스러운데 학교를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청소년 운동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억압의 당사자인 청소년 스스로가 저항의 주체로 나선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그러면 청소년이 아니게 되면 이걸 청소년 운동인가 아닌가? 여성은 죽을 때까지(자신의 성을 스스로 바꾸려 하지 않는 한) 여성이지만 청소년은 누구나 언젠가는 청소년이 아니게 된다. 그러면 청소년 운동은 한시적인 건가?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다. 청소년 활동에 관심 있던 많은 청소년이 이 시기를 벗어나면 관심을 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청소년 운동이 사안별 대응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두발자유 싸움은 두발자유를 얻으면 끝나는가? 하지만 지배 계급은 지배에 유용하다면 두발자유 정도는 허용해 줄 수도 있다. 20여 년 전 독재정권 시기에 교복자유화, 두발자유화가 이미 시행되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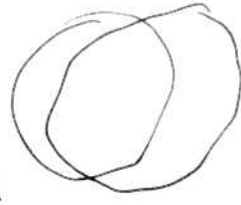
사례가 있다. 그렇다고 청소년의 삶이 달라졌나? 그리고 나서 필요에 따라 다시 교복 착용이 강제되고 말았다. 이걸 단지 보수정권의 집권으로 시대가 거슬러 올라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두발자유와 같은 구체적인 억압 상황에 대한 싸움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여기에 목표를 두어서는 어쩌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걸 모든 소수자운동에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하다. 공직자 여성할당제는 사회에서 여성의 배제를 줄이지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극소수의 중상류층 여성에 대한 혜택일 뿐이다.

결국 사회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지 파악하지 않으면 청소년 운동은(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아니라 유지를 위해 기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질문을 통해 청소년 운동은 교육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현재의 교육이 사회 제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자본주의 구조의 재생산 장치라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이 장치를 거부할 때 구조는 근본적으로 뒤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할 때는 청소년만의 인권이지만 청소년 해방을 말하는 것은 인간 해방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 인식이 된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운동은 인권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 같다. 현재는 침해 사례에 대한 상황 대응 위주 활동이다. 구조를 바라보려는 노력, 즉 인문학적 사고가 부족한 것 같다.

인문학적 사고는 세계를 주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이다. 주체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데올로기가 가리고 있던 세계의 모습을 접하게 된다.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며, 한 개의 사건, 한 사람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비로소 다가갈 수 있다. 이 때 구조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도 반추하게 된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이 갈등을 받아들이느냐 세계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들이고 기존 이데올로기 뒤로 숨느냐는 선택의 기로가 끊임없이 주어진다. 인문학 수업을 한다는 것만으로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러나 인문학을 통하지 않으면, 주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인문학적 사고란 지적인 허영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

이런 삶의 태도는 절대로 지배계급의 가치일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 인권을 좁게 이해할 때 이걸 얼마든지 지배계급의 가치와 만난다.(학내 종교 자유 운동을 벌인 강의석씨가 보이는 최근의 모습들, 학생인권법을 청원하는 희망이 청소년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 때) 계급지향 없는 청소년 운동은 사회운동이 아니라 이익집단 운동이 될 위험마저 있다.(우리 학교는 두발자유야. 인권 보장돼!) 지금 운동의 주체로 나선 청소년 활동가들과 우선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싶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실천 활동을 해나가고 싶다. 삶의 태도에 대한 고민에 따라 인간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관계 맺기에 있어서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청소년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하는 것도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간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지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 청소년 운동을 하려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 이미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과의 공부 프로그램을 같이 마련해 보고 싶다.

공현이 생각하는 청소년운동 (따로~)



공현의 청소년운동 메모

이 글에 워크숍 기획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요새 내 글 쓰는 스타일이 그래서, 토막내서 여러 주제들을 간단간단하게 쓴다. 왜 이렇게 요새는 메모만 하게 되는지. 여하간 대충 읽으면 될 것이다.

☆ 청소년운동

청소년운동이 뭐냐, 라고 물으면 글썽하시다. 뭐 특별할 게 있나 싶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운동'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미성년자'라는 말이 아무래도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대로 쓰기는 그렇고... 어쨌건, 누구나 대부분 경험하게 되고 또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변하는 특성 때문에 청소년이 소수자 정체성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 특성이 어쨌건 '미성년자'는 이 사회에서 분명 억압 받거나 통제받거나 차별받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된다. 음음.

여하간 이 사회가 '미성년자' - 국제적 용어로 하면 '아동'(child)을 따로 구별하고 불평등하게 (단순히 '다르게'가 아니다) 대하는 것, 그것이 청소년운동(좀 더 정확히는 저항적인 청소년운동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고... 내 경우에는 청소년인권운동이겠지.)의 이유이고 원인이다. 거기에 굳이 하나의 요소를 더 첨가한다면, 청소년들도 인간들이고, 인간인 이상 행복해지고 싶고, 행복해지기 위한 사회적인 조건들과 구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밖의 미사여구나 명분이나 이론은, 실제로 유용하거나 자기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청소년운동을 설명할 때는 그다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각자가 청소년운동을 하는 이유가 다를 것이고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도 다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 각각의 이유나 의미가 궁금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 이유나 의미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같이 운동을 하면서 그 이유나 의미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항상 많은 야야깃거리가 되는 청소년운동의 당사자주의 문제에 대해 덧붙이자면, 청소년운동에서 그 운동을 '누가'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지만 필수적인 문제는 아니다. 당사자주의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직접 하는 게 좋을 것이고 또 직접 하는 것이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만이 청소년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운동은 이 사회에서 청소년의 문제에 관한 운동인데, 이 정의에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한다는 규정을 논리적으로는 도출할 수 없다.

☆ 청소년운동이 있긴 했나?

'미성년자'(아동이라고 부르건 청소년이라고 부르건)를 일종의 소수자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운동을 한 역사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 글에서는 편의상 앞으로 '미성년자' 정체성 인식 뒤 이정도로 표현하겠다.) 1980년대 중고등학생운동('고운')이나 참교육운동은 민주화운동이거나 자주통일운동이거나 노동계급운동이거나 교육운동의 성격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또한 그 운동들에 인적 or 사상적 or 조직적 뿌리를 두고 있는 희망 같은 단체들은, 좀 성격이 광범위하긴 한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청소년운동단체로서의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는 학생자치와 교육, 문화활동, 자주통일 등에 대한 이야기가 강했지 '미성년자'의 사회적 지위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고민은 많지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억압과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저항하는 사건들은 끊임없이 있어왔고 앞서 언급한 운동들도 그런 움직임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성년자' 정체성 인

식을 중심에 두고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움직임이 한국 사회에서 없었다는 것이다.

나는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운동(1995년부터 그 역사를 짚어갈 수 있는)이 이런 입장과 이런 맥락에 서있는 운동들과 조직들을 만들어나가고 발달시켜 왔다고 본다. 이제 그 나이가 10년을 넘은 청소년인권운동이지만, 운동 역사 10년은 매우 짧은 편에 속하며 청소년인권운동이라고 제대로 부를 만한 것이 2000년대 들어서야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2000년대 중반까지도 “청소년인권운동”이라는 것은 극히 불안정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이었으며, 그 흐름은 정치 참여 운동이나 보호주의나 교육운동이나 기타 등등 다른 담론들과 뒤섞이고 부딪치며 흘러왔다. 그래서 나는 너무 조급해하지는 않기로 했다. 눈앞에 과제들이 쌓여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과제들을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게 우리의 일일 것이다.

☆ 2008년 상황과 청소년직접행동

나는 전누리처럼 (이른바) 정세 분석하는 걸 즐기지도 않고 정치 예보를 할 생각도 없으니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내 인식만 간단하게 쓰겠다.

이명박 정부는 절차적인 대의민주주의를 비롯하여 이루어진 정치적인 몇몇 자유들과 국민국가의 자주성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는 2002년 이후로 강하게 형성된 다수 사람들의 ‘국민’ 의식과 많은 부분 배치되는 한나라당을 비롯한 특권적 집단의 독주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불만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식이나 애국심이나 자주, 이 땅의 민주주의 등의 명분을 표면에 내세우며 표출되었다.(촛불집회) 희망 같은 단체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불만-욕망과 민주주의, 자주, 애국심 등의 대중적이고 거대담론적인 명분의 결합에 익숙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을 하는 내 입장(그리고 다른 몇몇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는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관찰시킬 수 없고 공론화시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예컨대, ‘성인’들의 역사는, 1920년대 항일독립운동이나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면서 부가적으로 내건 독자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 등은 모두 잊어버렸다. 그들의 운동은 단지 독립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일 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2008년 촛불집회도 광우병 쇠고기 투쟁으로 기억되기 십상일 것이며, 교육문제 등도 많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핵심 이슈로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소년들의 정치적 움직임들을 대놓고 탄압하거나 일정 부분 완화시키고 무마시키려는 움직임들이 촛불 안팎으로 많았다.

5.17 청소년행동도 ‘휴교시위’ 문자메시지를 계기로 이런 문제의식을 안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내 입장에서는, 청소년인권운동에서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모임인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가 2008년 초에 정한 연대체 성격 문제라거나 운영 호흡 등의 면에서 촛불집회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네트워크와는 별도로 촛불집회 정세에서 움직이는 모임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에 대한 우리의 고민 자체가 청소년들의 정치적 자유/권리의 문제 그리고 민주주의(그냥 대의민주주의 말고 --)를 그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직접행동의 활동방향도 주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권리 문제는 특히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며, 2001년부터(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선거권 운동이나 다른 여러 방식으로 제기된 문제였다. 분명히 이 문제를 물고 운동할 단위는 분명히 필요했고 청소년직접행동은 2008년 촛불집회 정세와 교육감 선거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했다.

* 여기에 따로 쓰진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 상황은 저항적인 운동을 하는 단체들에 ‘단결’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나로서는 달갑지 않은 정세이지만 그 필요성을 마냥 부인할 수는 없는 게 슬프다.

라도 솔직히 말하고 들어주기 더 쉬워질거 같아.

* 다들 사람인데, 상처받는 일이 있었을텐데, 그런 걸 서로 관심가지질 않아.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서로를 규정짓고 얘기해버린달지.

우리는 어쩌면 서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건지도 몰라. 상대방이 맘상하지 않게 이야기 하려다 보면 어느새인가 진심은 사라져있고 자신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가식적인 말로 덮어 씌워버리고... 이런 자세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 상대방에 나에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 한다고 맘 상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 비청소년은 어쩌든 활동가지만, 청소년들은 불안한 존재다?? <- (이 친구가 내년에도 활동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가들도 충분히 주체적이야. 물론 행동 하나하나에서 모두 주체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런것들을 청소년들이 세세한 행동에서 주체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물론 청소년들도 자기 자신이 행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체적이지 못한게 아닐까?' 하고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

공현의 제안

청직행이 유지되냐 마냐와 무관하다고 했는데 글썄...

그럼 애초에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미묘하게 방식이나 범위들이 달라져야 하지 않나. 여하간.

쌓이는 걸 자연스레 풀지 못하고 쌓아두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대개의 인간관계가 그런 면이 있지 않나요. 애매하게 친하지 않고 격하게 친하더라도. 내가 인간관계가 이상한 건가. 어쩌면 제 인간관계 방식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노는 건 그냥 포기하세요. 일 많을 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좀 릴릴해질 땐 꼭 놀러가기도 하고. 노는 듯이 일하는 거랑 그냥 노는 건 또 달라서...

일할 때 즐겁게 일할 필요는 있지요. 다만 그러려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추가적인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 들어온 사람을 사람 부족하다고 곧장 일부러 시키지 말고 1명이나 2명씩 붙여서 좀 같이 일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굳이 딱 그 사람을 위한 공부 같은 걸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운동이란 게 어려운 건가?

여성이 고민상담자가 되는 구조 같은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썄요. 이건 뿌리깊이 학습되어 있는 성역할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다지 묘안은 안 떠오르는 -_- 꾸준히 신경쓸 수밖에.

난 솔직히 비청소년도 별로 안정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스스로 좀 확실히 활동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있지만. 예를 들어 나는,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 생선도 좀 불안한데. 양아치도 불안하고. 스스로 활동가라는 자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 활동의 안정성이 다른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연은 따로~

조직화 혹은 재생산에 대한 거친 고민들

- 누리

- 다수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교육의 강화는 청소년들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박탈하고 있음. 집·학교·학원이라는 3중의 굴레 속에서 청소년들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터넷 공간을 선택하게 됨. 이는 90년대 이후, PC통신을 통해 성장해온 과정과 맞물린다고 볼 수 있음.

이 인터넷의 발달은 청소년들의 운동에 대한 접근성 역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음. 쉽게, 자신들이 처해진 환경에 대해 인터넷 공간을 통해 고발 할 수 있고, 한편으론, 기존의 청소년운동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운동의 영역에서 살펴볼 때 인터넷 접근 그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에서, 즉 현실에서의 조직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사업 등을 진행했지만 그다지 성과는 미미했음.(내부, 세미나정도로 머무름.) 장기적으로 그들이 나오고 활동을 고민해 볼 수 있는 틀이 되지 못했음.

- 한편 이와 다르게, 올해 촛불집회의 경우, 청소년운동진영과 별개로 자생적으로 나타난 결과 임. 수많은 청소년들이 나왔고, 이는 광우병쇠고기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근 이명박 정부의 무지 막대한 교육정책의 반발로 터져 나온 것임.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도 운동단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임. 촛불집회가 놓치고 있는 지점에 대해 의제를 확장하기위해 노력했지만, 그와는 별개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과 조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이 사실임.

- 이런 상황에서 고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함. 하나는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적극적인 행동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내는 작업일 것임.

- 지금은 적극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쉽게 모일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함. 다만 그 관계가 어떤 장기적이고 삶을 고민하는 모임이 되기보다는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로 끝난다는 것이 유감스러움.

- 보다 고민은 적극적인 행동을 고민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의 고민. 의제의 다양화일 수도 있을 것임. (ex 희망이 대표적인 모델 일 것임. 문화 및 활력프로젝트로 대표되는 다양한 접근.) 물론 여기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고민이 필요할 것임. 그러나 분명 인권적 의제로 접근하는 것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길 중에 하나의 길일 수 있음.(물론, 인권적의제는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위에도 말했듯이 점차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만날 것인가의 고민. 하나의 고민이 지역적인 접근. 자기 동네에서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 보다 많은 경험이 필요함. 인터넷을 통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딪혀 봐야 할 거라고 생각함. 이미 뭐 전단지나 나눠주거나 캠페인을 하는 방법을 뛰어 넘어서 그들의 삶의 지근거리에 찾아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음.